

새해에는 Obsidian을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경험분석팀 권혁민입니다.

저는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정신 승리를 선택하는 쪽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온전히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새해를 잘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말을 가슴 속에 품고 있어요.

"Everyone deserves another chance."

제가 일하면서 많이 들었던 조언이고, 저 역시 새로 리서치 업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직업과 직무에 맞는 지식베이스를 구축해놓았는가 ?

(‘No’라고 대답했는데 자신이 10년차 이상의 기획자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만의 지식베이스를 구축해놓으셨나요? 아마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구축해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another chance’가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긴 하지만)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해보면 되니까요.

저는 ‘Obsidian’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나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Evernote나 Onenote 등을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Obsidian을 사용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컬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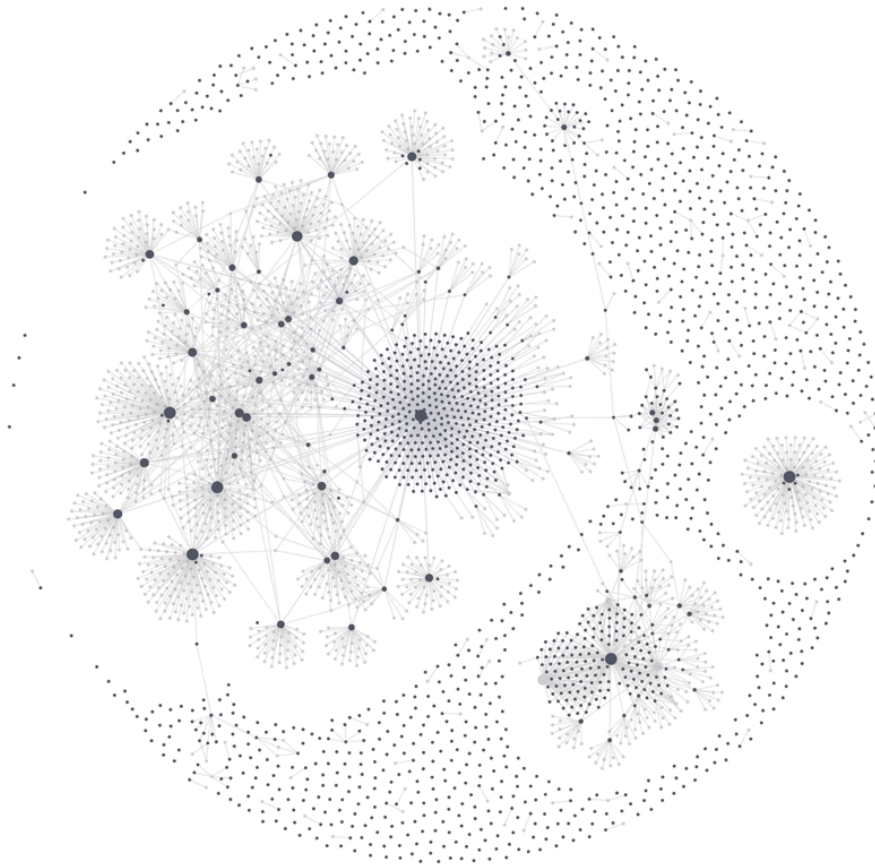
Obsidian은 메모를 내 장치(PC와 모바일 모두 가능!)에 꼭 저장해둡니다. 클라우드? 그런 건 필요 없죠! 덕분에 내 데이터는 오롯이 내 것, 인터넷 없이도 마음껏 메모를 열어볼 수 있어요. 게다가 데이터를 외부 서버에 보내지 않으니, 개인정보 보호도 뽐냅니다.

단순한 텍스트 파일

Obsidian은 메모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게 단순히 보일지 몰라도, 정말 강력한 특징이에요. 텍스트 파일은 마치 종이에 써 둔 것 처럼 언제 어디서나 꺼낼 수 있고, 어떤 도구와도 쉽게 호환됩니다. 무엇보다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에 묶이지 않아서 "이 서비스 종료합니다"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내 메모는 온전히 내 것이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풍부한 연결 기능

Obsidian은 메모끼리 연결하기가 초간단! 덕분에 똑똑한 지식 관리가 가능하죠. 양방향 링크와 그래프 뷰를 활용하면, 메모들이 서로 어떻게 얹혀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있던 아이디어들을 발견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지식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저의 Obsidian 노트를 그래프 뷰로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Obsidian을 설치하고, Web Clipper로 스크랩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은 저를 호출해주세요.**

1. Obsidian 설치하기

먼저, Obsidian 공식 웹사이트([Obsidian - Sharpen your thinking](https://obsidian.md))에 방문하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Obsidian을 실행해보세요!

2. Obsidian Web Clipper 설치하기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스크랩하려면 Obsidian Web Clipper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 따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 **Chrome:** [Chrome 웹 스토어](#)
- **Safari:** [Mac App Store](#)
- **Firefox:** [Firefox 부가 기능](#)
- **Edge:** [Microsoft Edge 애드온](#)

설치가 완료되면 브라우저의 도구 모음에 Obsidian Web Clipper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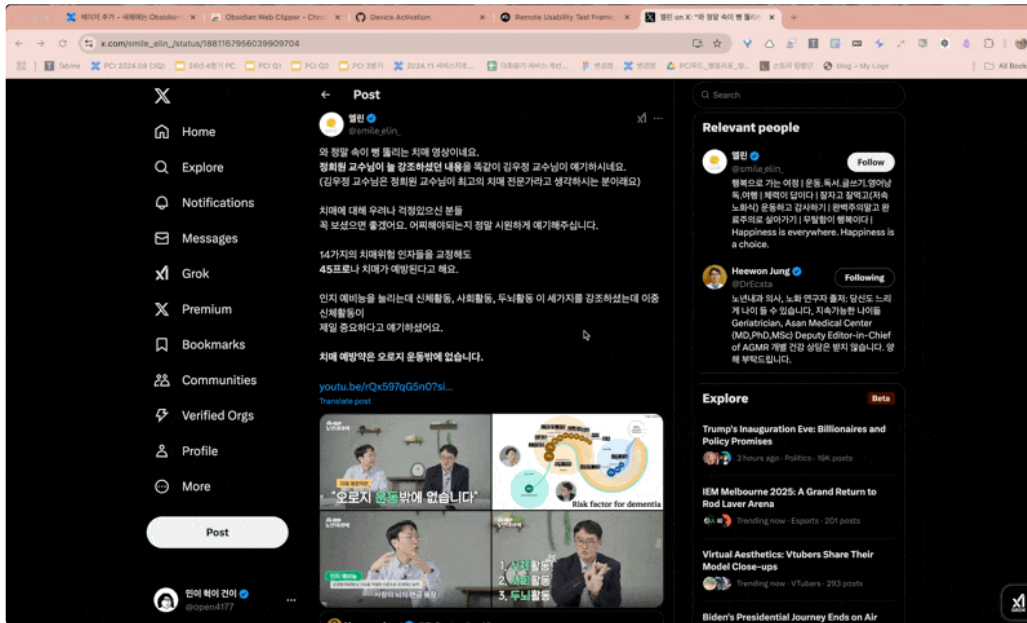
3. 스크랩하기

이제 웹 서핑 중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면 Obsidian Web Clipper를 활용하여 스크랩을 해보세요.

1. **웹 페이지 열기:** 스크랩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엽니다.
2. **클리퍼 아이콘 클릭:** 브라우저의 도구 모음에 있는 Obsidian Web Clipper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3. **스크랩 옵션 선택:** 나타나는 메뉴에서 스크랩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페이지를 새로운 노트로 저장하거나, 선택한 텍스트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확인:** 선택한 옵션에 따라 스크랩된 내용이 Obsidian의 지정된 보관함(Vault)에 저장됩니다.

웹에서 찾은 유용한 정보들을 Obsidian에 손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X(舊 트위터)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글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스레드 전체가 다 저장이 되어서 매우 편리하더라고요.



4. 모든 메모와 스크랩을 Obsidian으로 단일화하기! 🔄

저는 모든 메모와 스크랩을 Obsidian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노트를 ‘단권화’하는 것처럼, 업무나 관심사 등에 대한 모든 것을 Obsidian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고, 관련된 다른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거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메모를 찾을 때 Obsidian을 애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의 Obsidian에서 “조관희”를 검색하면 옛날 옛적에, 우아한형제들에 리서치팀도 없고, 리서처도 없던 시절에 관희님이 ‘한국리서치’에 리서치 요청을 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네요. 앗튼 가끔씩 나만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의뢰처 우아한형제들

-의뢰처: 우아한형제들

-담당자: 조관희

-연락처: 010-3727-7224

안녕하세요. 우아한형제들 배민서비스실 조관희라고 합니다.

리서치 문의를 드리기 위해 귀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조사문의'지면을 통해 의뢰를 진행하다가 계속 웹사이트에 오류가 떠서 대표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리서치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리서치의 진행 방식, 업무 경험, 비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 고객경험지표개발: 배달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 서비스가 좋다' 라고 느끼는 체감 지표를 정의
- 분기별 정량 리서치(서베이) 진행: 개발한 지표를 사용하여 분기별 리서치 진행
- 비정기 정성 리서치(FGD, in-depth interview 등) 진행: 특정 이슈를 주제로 비정기적 리서치 진행 (분기에 1~2회 정도)
- 해외 사례 조사 리포팅: 유사업종의 해외 서비스 분석

long long time ago, 관희님이 한국리서치에 보낸 리서치 의뢰

저는 새해를 맞이하며, 나만의 데이터 베이스(일종의 지식관리시스템)를 구축해보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꼭 Obsidian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꽤나 길다고 하니까 심심하실 때 해보시면 시간도 잘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